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구역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방회 대표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2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19일(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녁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7:30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3,4월은 김재홍 목사가 <강아지똥 복음서 :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일(3일)부터 9:30 예배를 2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1부 예배 시간은 9:30 - 10:30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이전과 같습니다. 단 중고등부만 새롭게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농도생협에서 유기농 양계장 황토농장(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유정란을 예약주문 받습니다. 유정란 1판에 10,000원, 구운유정란 1판에 13,500원입니다.

오늘부터 강석남 장로님께서 찬양대의 지휘를 맡습니다.

주일 공동식사를 할 때 잔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드실 만큼만 받아 가시고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1부 예배	사 43:16-21 / 시 126 빌 3:4b-14 / 요 12:1-8	2부 예배	요 15:18-27
-------	--	-------	------------

오늘 식당 봉사 :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유은정 이순용 임주빈 이주경
 다음 주 식당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운숙 김선영 이오복 권정연 조장형 박재영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6여선교회
 떡 대 접 : 이재문 권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사순절 제4주 】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봄날을 베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록빛 오르는 새순, 어여쁜 작은 꽃송이, 파릇한 새싹, 이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풍경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황폐해진 마음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들이 돋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봄을 맞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것과 달리 한반도에는 냉랭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불필요한 충돌과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의 날이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갈5:24,25 인도자
- ♣ 교 독 문 127. 사순절(4)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함께
- ♣ 성경봉독 1. 수5:9-12 고후5:16-21 눅15:11b-32 박민선 선생
 11. 사 5:1-7 김현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찬양대
- 말 씬 1. 새로워진다는 것 김기석 목사
 11.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강요한	한원	은이	고숙이	공종철	철순	구자경	구명자	자심	권미숙	숙순
권미정	권혁래	김기순	김기철	김희우	김희우	김남이	김종오	김재홍	김대영	김효이	김정희	김성희	김성화
김수진	김영호	김인걸	김영혜	김일철	김영철	김은영	김재욱	김재훈	김희자	김정수	김희수	김희숙	김순정
김정진	김혜정	김지현	김지호	김전혜	김미연	김범희	김필순	김현미	김영오	김경규	김연화	김연화	김연화
김지윤	김정우	김지현	김지호	김전혜	김미연	김범희	김필순	김현미	김영오	김경규	김연화	김연화	김연화
손의나	문금석	박문성	박경혜	박미연	박미연	박범희	박범희	박미연	박상규	박상규	박상규	박상규	박상규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설규범	송정근	이소애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송정현
오자영	왕수명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유근우
이경희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이범석
장은주	이에서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이용현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최현옥
김재영	정아름	정완수	김재광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정재기
최형균	강경화	추현우	하현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하현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최성애

감사헌금

강금분	강신철	이혜정	김인걸	문영혜	김지호	전혜리	김해선	김향자	김희선
박경애	박기영	박숙미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운	서은혜	신진식	변혜정
윤순우	이광석	이경희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정수철	진혜정	한선희	무명15

생일감사헌금

임성호 임보람

녹색꿈헌금

김영호 유종희 은종인 임승동 백혜숙 정수복 장미란 무명3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조순덕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서원금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장미경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정선희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배삼순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이순정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김재광	청 파7속	김재환	
가 버 나 움	안홍숙	정현주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랫	김경혜	송양진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마음으로 읽는 글

출세한 시인에게

너는 생각보다 더 빨리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물고기처럼 싱싱한 상상력과 지느러미 대신
 갈퀴처럼 날카로운 손이라는 도구를 쓸 줄 알았다
 너에게 속도와 질주를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복권에 당첨된 표정 같은 득의만면이 아니라
 안개 속에 두려움을 커튼처럼 젖히고 나서
 비로소 저 산정에 서서 땀을 씻으라는 것이었다
 서서히 네 자신에 도달하라는 것이었다
 지난밤의 외로움을 바다 끝까지 밀고나가
 심연에 살며/ 불온한 천재로 자꾸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네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위험한 방식으로
 남을 밀어뜨리는 일이었다
 관습과 지배의 얼굴은 빠른 속도로 익히고
 그 아래 꽃을 바치는 일이었다
 시인아, 너는 힘 있는 구두와 빠른 골목을/ 너무 쉽게 알아버렸다
 조금 더 헤매어도 좋았을 것을.....
 배회와 방황을 속으로 비웃으며
 유명한 이름아, 네가 읊조리는 시는
 겨우 의미의 시중을 들기 바쁘구나
 그래, 賣笑婦처럼/ 예쁘게 부드럽게 손을 흔들어서
 이제 물심양면의 하수인들이/ 책을 사들고 상패를 싸들고
 네 앞에 長江을 이룰 시간이다

- 문정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의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선하고 옳은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이가 됩시다.	
다함께:	아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선하고 옳은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뵈는 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김동호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조항범 권사	김윤정 권사

3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박석희 이증자 조항미 오자영 이현순
	헌금위원	하현철 권미숙

믿음으로 읽는 글

똥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느 봄날, 권정생은 강아지똥이 제 몸을 잘게 부숴 민들레꽃을 피우는 것을 본다. <강아지똥>을 쓴 것은 ‘저것도 거름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강아지똥>은 권정생이 관념만으로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쫓고 보잘것없는 것은 무시하고 천대하는 현실에 저항하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알고 나서 ‘거꾸로’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강아지똥>을 썼다. 민들레꽃을 조연으로, 강아지똥은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똥이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그의 동화는 처음부터 현실의 생각을 뒤집었다. 기존 동화의 틀을 깬,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품이었다.

강아지똥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존재가 되는 세상이야말로 그가 꿈꾼 아름다운 세상이다. 걸음으로 화려한 부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가 꿈꾼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 <강아지똥>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민들레꽃과 강아지똥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강아지똥>을 쓰고 나서 돌아보니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강변의 돌멩이, 들꽃,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골목길의 지푸라기”들도 모두 버려진 것이지만 그를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늘 홀로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곁에는 그에게 손짓하는 친구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사랑을 느꼈다. 길을 걸으면서 만난 그들은 권정생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었다. 권정생은 이들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한다.

<강아지똥>을 쓴 것이 이제부터 30년 전인 1968년 가을에서 1969년 봄까지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꽃이나 해님이나 별같이

눈에 잘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버려지고 숨겨진 목숨을 찾아 그것들을 이야기로 썼던 것입니다. <먹구렁이 기차>, <깜둥바가지 아줌마>, <오누이 지렁이>,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이런 이야기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똥>을 비롯해 <먹구렁이 기차>, <깜둥바가지 아줌마>, <오누이 지렁이>,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같은 단편들은 당시로서는 낯선 등장인물도 그러려니와 줄거리도 모두 죽음을 다루고 있어 외면당했다. 아이들이 읽을 동화가 너무 어두운 데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낯선 때였다. 그러나 이오덕은 이 동화들은 “시공창에 버려져 짓밟힌 목숨들의 세계가”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어느 작가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인간스런 세계요,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이 동화들을 들고 잡지사를 찾아다녔지만 지면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권정생도 자기 동화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그린 동화를 쓸 생각은 없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지고 외면당할지언정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걸 권정생은 굳게 믿었다. ...

권정생은 책제목으로 처음부터 <강아지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부드럽고 가냘픈 제목을 원했다. 그는 강아지똥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강아지똥을 싫어한다며 아이들에게 “한 덩어리의 오물(거름)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제목을 <강아지똥>으로 하길 바랐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정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깜둥바가지 아줌마>를 차선으로 제시하려 했는데 다행히 그의 뜻대로 <강아지똥>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